

# ‘레모나’ 경남제약, 결국 공개매각 시간 벌었지만 상장유지 ‘가시밭길’

### 한국거래소, 최대주주 확보 권고 횡령 등 상폐 사유 누적해 우려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경남제약이 회생을 위해 공개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권고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재무건전성이 담보된 우량 최대주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데다 최근 횡령 사건까지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누적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 ◆우량 최대주주 공개 모집

경남제약이 선정한 주간사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부터 경남제약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 시작한다. 경남제약은 지난 18일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공시 한 바 있다.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이뤄지며 실사 등을 통해 다음달 10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이번 공개 매각을 통해 우량한 전략적 투자자(SI)나 재무적 투자자(FI)를 선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지난해 경남제약의 상폐 여부를 심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우량 최대주주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제약 최대주주는 자본 12.48%를 보유한 마일스톤KN펀드다.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이회철 전 경남제약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4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이 전 대표의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고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개선기간을 거쳤지만, 지난해 12월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상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남제약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에 한번 더 회생 기회를 준 셈이다. 당시 거래소는 재무건정성이 담보된 우량 최대주주 확보와 경영체제 개편 등을 경남제약에 요구한 바 있다.

#### ◆횡령까지.. 쌓이는 ‘악재’

상폐 위기 직전에 경남제약이 기사 회생하며 부여 받은 기간은 내년 1월 8일 까지도. 남은 9개월 간 상폐 위기를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하지만 최근 또 다른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3월 경남제약은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으며 또 다시 상폐 위기에 몰렸다. 경남제약은 지난 8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상폐 여부는 오는 29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심위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 경영지배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김주선 경남제약 대표가 김상잔 전 경영지배인이 25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 받은 것과는 별개로 횡령·배임 혐의가 밝혀지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며 “감사의견 한정 사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실질심사는 기존 개선기간 12개월이 끝난 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 기보, 지식재산보증 722억 ‘역대 최대’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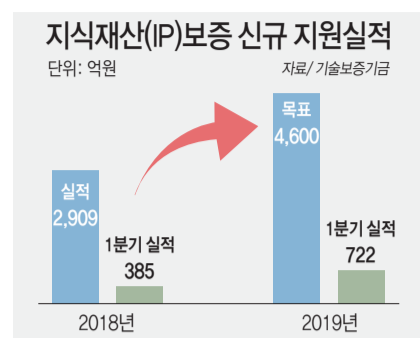
### IP패스트보증 지원성과 실적 반영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보증 활용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보는 올해 1·4분기동안 지식재산(IP)보증 722억원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5% 증가한 것으로 기보가 2006년 지식재산(IP)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1분기 실적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같은 실적상승은 올해 2월 출시한 ‘IP패스트보증’ 지원성과가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IP패스트보증’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자동 산출해주는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상품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선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3단계 개발과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평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IP패스트보증’을 선보인 바 있다. ‘IP패스트보증’이 출시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신속 IP금융 제도’로 입소문 나며 호평받



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도 혁신금융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IP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 17일 지식재산금융 포럼을 발족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IP담보·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보는 IP금융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2006년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1조 5534억원의 IP보증을 지원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IP금융의 약 79%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기보가 IP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승호 기자 bada@

# 中 진출 韓 기업, 1분기 경기 바닥쳤다

### 전기전자·금속기계 등 회복 전망 “2분기, 경기 큰 폭 개선 기대를”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경기가 2분기에는 크게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3분기 연속 경기실사지수가 하락했지만 1분기로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7개 업종의 2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실사지수(BSI) 값으로 산출한 것이다. BSI 지수는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을 초과 시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기는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체의 상황 BSI는 2018년 4분기 87에서 2019년 1분기 85로 하락했다. 경기실사지수 중에서 특히 매출액과 현지판매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매출액 BSI는 2018년 4분기 93에서 2019년 1분기 80으로 13이나 하락했고, 현지판매도 90에서 79로 11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화학, 섬유·의류의 부진이 가장 두드러졌다. 2019년 1분기 화학 분야 매출 현황 BSI는 전분기 94에서 37 떨어진 57로 나타났다. 섬유·의류 분야도 36 떨어진 67이었다. 제조업도

### 〈전체 기업의 부문별 현황 및 전망 BSI, 경영애로사항〉

	현황 BSI					전망 BSI					
	지수 기준		전기비 기준			지수 기준		전기비 기준			
	2018 3분기	2018 4분기	2019 1분기	2018 4분기	2019 1분기	2018 4분기	2019 1분기	2019 2분기	2019 1분기	2019 2분기	
상황	95	87	85	(-8)	(-2)	103	83	106	(-20)	(+23)	
경영 실적	매출액	102	93	80	(-9)	(-13)	117	87	120	(-30)	(+33)
	경상이익	86	80	72	(-6)	(-8)	96	75	106	(-21)	(+31)
	현지판매	98	90	79	(-8)	(-11)	119	89	116	(-30)	(+27)
판매	한국재판매	95	91	84	(-4)	(-7)	98	95	95	(-3)	(0)
	제3국판매	101	101	95	(0)	(-6)	99	96	107	(-3)	(+11)
	인건비	149	136	141	(-13)	(+5)	148	145	150	(-3)	(+5)
비용	원자재구입	144	128	121	(-16)	(-7)	146	126	135	(-20)	(+9)
	설비투자	109	103	102	(-6)	(-1)	107	104	108	(-3)	(+4)
	영업환경	84	73	73	(-11)	(0)	89	77	95	(-12)	(+18)
경영 여건	자금조달	85	69	75	(-16)	(+6)	84	75	86	(-9)	(+11)
	제도정책	77	78	81	(+1)	(+3)	78	74	87	(-4)	(+13)
경영애로사항 (응답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수요 부진 (18.4분기 21.5% → 19.1분기 20.6%)</li> <li>▶ 수출부진 (10.3% → 8.9%)</li> <li>▶ 인력난/인건비 상승 (13.1% → 14.0%)</li> <li>▶ 경쟁 심화 (16.8% → 18.2%)</li> </ul>										

BSI는 81로 전 분기 대비 13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4)보다 중소기업(79)에서 조금 더 부진했다.

경영 애로사항은 현지 수요 부진이 2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기는 2분기에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분기 전망 BSI는 상황(106)과 매출액(120) 부분 모두 100을 뛰어넘으며 크게 상승했다. 현지판매(116)도 큰 폭으로 올랐다. 설비투자(108)도 4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분기 크게 하락했던 섬유·의류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경기가 회복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2018년 2분기

전망 BSI에서 제조업은 120으로 2분기 만에 100을 상회했다. 전기전자(148)와 금속기계(148)에서 기대감이 뚜렷하고, 자동차(119), 화학(123), 유통업(123)도 1분기와 달리 100을 뛰어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23)이 대기업(109)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은 수요 부진 문제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전체로는 현지 수요 부진과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수요 부진을 응답한 비중이 전 분기 31.5%에서 26.8%로 줄었다.

/배한남 기자 ericbae1683@

# 팅크웨어 전동 킥보드로 모빌리티 사업 진출

팅크웨어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에서 전동 킥보드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팅크웨어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아이나비 스포츠 로드 기어’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아웃도어 브랜드인 ‘아이나비 스포츠’를 새롭게 선보이며 관련 제품인 모터사이클(M1), 자전거 블랙박스(TC-1)를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아웃도어 외에 모빌리티 사업에도 본격 뛰어 들게 된 것이다.

아이나비의 첫 마이크로 모빌리티 제품인 ‘아이나비 스포츠 로드 기어’는 500W(최대 출력 1000W) 전동모터를 탑재해 최대 시속 25km를 자랑한다. 또한 최대 15도 오르막길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완충 시 최대 55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정 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수 있는 크루즈 모드도 탑재됐다.



KC인증을 받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장시간 주행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배터리 보호회로(BMS)가 적용됐으며 USB를 통해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다. 또한 주행 중 안전을 위해 전륜 1개, 후륜 2개의 총 3개의 서스펜션이 적용돼 안정적 주행도 가능하며 그 밖에도 속도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였다. /김승호 기자

# 바디프랜드, 온가족 건강관리 프로모션

바디프랜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바디프랜드는 램보르기니 안마의자,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이탈리아산 100% 천연 라텍스 침대 라클라우드 등 온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고품격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가문의 건강’ 프로모션을 5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국 직영전시장과 백화점 매장,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 제품을 램보르기니 구매하거나 홈쇼핑 상담을 마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한 가족(친·인척 포함)이 안마

의자 2대 이상을 한 번에 렌탈 또는 구매하면 156만원 상당의 라클라우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Q, 20cm)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프로모션에 참가한 고객들은 추첨을 통해 램보르기니 안마의자 1대와 하이키 10대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램보르기니 안마의자는 바디프랜드가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오토모빌리 램보르기니’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선보인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이다. 하이키는 성장판 자극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다.

경품 당첨자는 오는 6월 10일 바디프랜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개별통보한다. /김승호 기자